

# 농약은 지금...

小澤 啓男

일본식물조절제연구협회 상무이사

**옛** 날이라 하기에는 무엇하지  
만, 농가와 비농가(非農家)  
사이가 전에는 그토록 나쁜 관계  
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생산  
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비하는 사  
람들은 감사의 마음이 충분히 있  
었다.

“도롱이 걸치고 팽이 맨 농군은  
수고한다”는 노랫소리가 또렷이  
들려오는 듯하다.

“참으로 쌀 한 톨, 고구마 한  
덩이가 귀중한 것이었다”고 해도,  
‘이 포식(飽食)의 시대에 새삼스  
레 무슨 이야기인가?’라고 할지  
모르나 당시의 농가는 농업생산에  
기쁨과 긍지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지금

은 풍작은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  
며, 농약사용의 편리함이 죄악(罪  
惡)처럼 얘기된다. 게다가 벌어들  
인 외화를 모두 농업이 먹어치운  
다는 학자마저 있는 지경이다.

이래서는 농가는 생산의욕을 잃  
을 뿐 아니라 일부의 선동으로 비  
농가측(非農家側)과 농가가 원수  
같은 관계로 되는것도 슬픈 일이  
다. 농가는 달리 길이 없다. 간단  
히 재기(再起)할 만큼 농민은 몸  
도, 마음도 가뭄지 못하다.

농업생산물의 소비자, 즉 오늘  
날 소비자를 대표하는 일부 특정  
사람들중에는 농가에서 농약을 편  
리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언  
짚게 생각하는듯 싶다.



옛부터 「정농(精農)」은 ‘풀이 보이지 않게, 풀을 뽑는다’라고 전해올 정도로 농업은 잡초와의 싸움이라고도 말해지고 있다.

농민들은 여하히 해서 잡초와의 싸움에서 이기느냐 하고 팽이질을 하고, 자기 손을 호미삼아 논밭에서 씨름해왔다. 제초제가 개발되고 이것의 사용으로 간단하게 방제할 수 있게되어 농민은 노동면이나 건강면에서도 현저히 은혜를 입게된 것이다.

그런데 ‘화학물질의 사용은 위험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사람들로서는 이 화학적 방제법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인지? 논에서 기다실이 하면서 세벌, 네

벌 손으로 김매는 쓰라린 고통을 농민에게 다시금 안겨줄 수는 없다. 그 때문에 더욱 안전성 높은 농약의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시비(是非)만 할 것이 아니라 노력의 과정보도 평가해 주었으면 한다. 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 해서는 안되는 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보(情報)라는 말, 흔히 인포메이션(information)이라는 말은 단지 데이터(data)를 의미하며, 진정한 정보는 인텔리전스(intelligence)」라고 쓴 책을 본 적이 있다. 오늘날을 정보화시대라 부른다. 정보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풍부한 인포메이션 속에서 참다운 정보를 얻어 바르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농약에 관해서도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많은 자료가 제공되기 시작했다. 이를 잘 활용하여 단순한 데이터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연구를 쌓으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농약에 대하여 ‘환경보전’이란 미명하에 감정에 치우친 어리석은 비방만은 그쳐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